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백경*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에 위치해 있으며 도심과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어 공부하기에 적합합니다. 시설은 처음엔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지내면서 모든 걱정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래, 위생, 편의 등이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교육의 질 또한 상상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업	첫날 레벨테스트를 통해 그룹을 5인 1조로 나눕니다. 하루에 1:1 수업 3시간, 그룹수업 5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단어, 문법, 발음, 듣기, 말하기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수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유쾌하신 분들이며 덕분에 본인이 어울리며 즐겁게 수업할 자세만 되어있다면 정말 만족스러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재를 따라가며 진도를 나가기도 하지만 수업외의 주제로 상당 부분 시간을 소모하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 또한 정말 좋은 수업입니다.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문장 하나 더 해석하는 것보다도 듣기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교재는 각 수업마다 전부 다르며 레벨테스트에서의 수준에 따라 다른 교재를 사용합니다. 물론 레벨별로 그룹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룹교재는 각 그룹끼리는 동일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매우 기꺼워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시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수업이 있고 오후에 또 4시간이 있으며 각자의 수업스케줄은 조금씩 다릅니다.
Activity	고아원에 방문하는 활동이 있었고 기부비로 300페소를 지출했으며 요트를 탈 기회도 있습니다. 탑승료는 학교에서 지원해주어 지불하지 않았으며 안바얀 코브라는 아름다운 리조트에 갈 기회가 존재합니다. 입장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으며 들어가서 사먹을 소정의 돈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닐라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제가 간 계절이 겨울이기에 겨울을 기준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낮에는 덥고 습하며 밤에는 선선합니다. 그러나 낮의 날씨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더운 것은 아니며 오후5시가 넘어가면 딱 알맞은 날씨가 됩니다. 비는 아주 간간히 오고 오더라도 금방 그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에 대해선 안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메인게이트를 기점으로 어학원이 있는 지역은 매우 안전하며 게이트를 통과하여 올롱가포시티로 가면 어학원이 있는 지역만큼 안전한 곳은 아니나 다니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성립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v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청소와 빨래는 매일 직원들이 해주며 정글 안에 있기에 벌레는 간간히 보이나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식사	학교식당( v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 조식과 중식 석식이 모두 나오며 석식은 학교식당에서도 먹지만 주로 외식을 즐겼습니다. 식단은 한식으로 나오며 맛이 좋고 영양분도 풍부합니다.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교통	기숙사에서 살기에 별도의 통학방법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외부로 나가 외식이나 쇼핑을 하고 싶다면 fp라는 교통수단과 택시를 통해 오고갈 수 있습니다. fp의 비용은 13페소이고 택시는 120~200페소입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쇼핑 등	500,000	지인선물, 기념품, 외식, 쇼핑 등
합계	1,235,4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아주 많지만 그냥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사전 OT때 공지된 바를 정확히 숙지하고 모두에게 배포되는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면 됩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등을 가져가는 것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지병이 있거나 필히 가져가야 하는 의약품은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사항에 대해 딱히 긴 말은 필요 없고 오리엔테이션 후 받는 설명서와 유인물을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모든 준비물과 준비해야 할 것, 중요한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한국돈을 바로 페소로 환전하지 말고 달러로 환전한 후 필리핀 현지에서 가서 페소로 바꾸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수업에 대해선 위에 이미 적시했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으나 매우 만족스럽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만족과 불만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어학원측에서 준비한 주말활동은 매우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고아원에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보낸 시간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과 소감을 여기에 쓰자면 끝이 없을 것이기에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만족한 점을 쓰겠습니다. 첫째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만났을 시 머리로만 단어가 맴돌다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알지 못해 더듬거리기 마련이었는데 무슨 말든 시도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한달 전의 나와 한달 후의 내가 달라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비록 지금 영어를 잘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공부해야 할 것은 정말 많으나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자신감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생각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에 급급하여 먼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꿈은 크고 넓게 가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넓다는 것을 알았기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거나 긴 시간을 체류한 것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달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겪었고 배운 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를 배워놓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여행을 다니거나, 친분을 쌓거나, 본인이 원하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어 외국어가 필요함은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한달 동안 가끔 든 생각은 '영어를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즐겁고 보람차지 않았을까?' 였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향상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영어에 매진하는 좋은 계기가 됨은 분명합니다. 무언가를 무조건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제가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니 졸업 전에 꼭 한번 경험해볼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마닐라대학 방문</p>	<p>요트활동</p>
	
<p>현지레스토랑 외식</p>	<p>기숙사 전경</p>
	
<p>선생님집 방문</p>	<p>올롱가포 시티전경</p>